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문화공간이름, 29일 박안나 할머니 꿈을 찾은 늦깎이 예술가 이야기 조명

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문화공간이름에서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박안나편 공연이 진행 된다.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소극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를 모으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며 진행되고 있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테마를 담은 명화와 화가, 클래식 작곡가와 음악을 접함으로 인해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문화 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9일 문화공간 이름에서 진행되는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시리즈가 마지막 편을 맞이하여 특별한 주인공, 박안나 할머니를 조명한다.

이번 박안나편은 단순한 예술 공연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예술적 열망을 중심으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한다.

박안나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은 평범한 일상의 틀 안에서 꿈을 찾고 예술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니 평범했던 일상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박안나 어르신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인생 후반기에 그림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은 그녀의 감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포스터

동적인 여정을 예술적으로 펼쳐낼 예정이다.

이날 박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줄 연주자들은 가수 지혜, 기타 이상욱, 콘트라베이스 정효준, 드럼 정명준이 나와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그때 그 사람, 하숙생, 일필휘지 내사랑, Fly Me To The Moon 등 박안나 어르신이 평소 즐겨 들던 음악들이 연주될 예정으로, 청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안나의 기록과 작품은 그녀의 삶의 진솔함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작년 미술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듣고 싶었다는 관객분들의 니즈를 파악해 미술 작품에 관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해설을 해 줄 전 전북일보·전북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현 한국미술, 전북미술 홍보 기획 이사 겸 전주미협 홍보 기획분과 위원장인 최지영 작가를 초청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욱 높여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문화공간 이름 이운정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차별화된 문화 체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각 명화의 감정과 주제를 담은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음악 장르가 만나는 공간으로, 도민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11월 공연 전석 2만2천원이며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느낌따라 클래식 산책'이 진행된다.

이번 시리즈는 박안나 할머니의 사례처럼 예술의 꿈을 키우고 싶은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나 클래식 음악과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느낌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열린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 (063-223-5323) 문화공간이름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김영대 음악평론가 특강 성료

'K팝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 주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은 지난 13일 김영대 음악평론가를 초청해 'K팝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JB문화공간 개관 5주년 기념 '가을 음악 축제'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흥미로운 K팝 강연과 함께 호원대학교 걸그룹인 '아플러스'가 초대돼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음악평론가이자 음악인류학자로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의 유명 방송 프로그램부터 K컬처 포럼, 라디오 및 유튜브 방송까지 다방면에서 K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K팝의 태동부터 발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현재 K팝의 위상과 미래까지 K팝 문화와 산업을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루며 수준 높은 강연을 들려주었다. 특히, K팝을 이끌어 온 대표 가수들에 대해 소개하며 K팝이라는 거대



한 문화를 만들어 낸 여러 기획자들의 이야기와 K팝을 지탱하는 팬덤 문화까지 K팝의 면면에 대해 다양한 층위로 살펴보는 유익미한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JB문화공간 개관 5주년 기념 '가을 음악 축제'는 앞으로 전주 JB문화공간 라운지에서 11월 말까지 성기선 전주시향 음악감독 및 삼일지회와 함께 하는 '클래식 토크 콘서트', 우리나라 대표 국악인 남상일의 '국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JB문화공간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신청은 JB문화공간 통합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완주 미디어 아트 페스타 열린다

완주문화재단, 오늘 소양고택서 미디어파사드·작품 전시 등 진행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15일 소양고택에서 완주 미디어 아트 페스타를 연다.

14일 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미디어아트허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미디어파사드 △지역 예술가의 NFT 작품 전시 △친환경 가치를 담은 별빛주막·소양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의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의 융합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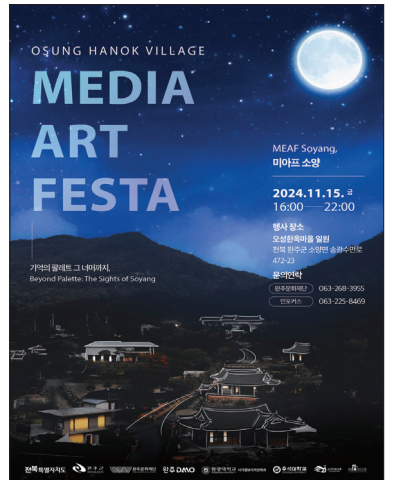
이번 축제에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별빛주막·소양점'은 지역성과 감성을 담은 소양한상 패키지를 통해 완주의 미식 문화를 선보인다. 소양한상은 VIP존에서 계절 식재료로 만든 두 가지 페어링 메뉴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막걸리로 구성된다.

일반존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 야간 산책길, 플라마켓, 푸드존 등이 준비돼 있어 가을밤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오성현옥마을에서 펼쳐질 미디어파사드 '기억의 팔레트, 그 너머까지'는 완주의 상징인 누에고치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집, 선, 먼 등 조형 요소로 생명과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며 전통 건축물과 미디어아트의 융합을 시도했다.

관객들은 한옥 벽면에 투영된 화려한 나비 날개와 비상의 이미지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시간의 연결고리, NFT 작품 전시'에서는 송지호, 황세화, 김지우, 유시라, 이민우 등 완주 예술가들의 NFT 작품이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전시된다.



이번 페스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완주문화재단은 이번 축제를 친환경 방식으로 기획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손목에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봉찌'를 결합해 쓰레기를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무단 투기 문제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소양한상 패키지는 다화용기를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준비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동시에 전한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주문화재단, 14개월 이하 영유아 공연 '개똥이의 모험'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14개월 이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생애 첫 예술 경험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6회에 걸쳐 공연될 '개똥이의 모험'은 팔복예술공간에서 0~14개월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올해로 4년째 재단과 영·유아 공연형 예술놀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공연예술창작소 극단 데미샘(대표 최성욱)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작품이다.

'개똥이의 모험'은 이제 막 고치에서 나온 반딧불이 개똥이가 쇠똥구리, 거미, 나비와 놀며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모험을 클래식 기

타의 연주와 함께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비언어극 형태로 진행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춘 지역이 많지 않은 만큼, 전주가 선도적인 예술놀이 콘텐츠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팔복예술공간 B동 풀터마루에서 16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17일, 23일 3일간 총 6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팔복예술공간 누리집(www.palbokart.kr)에서 사전 접수를 통해 회차별 12가족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의는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